

사설

불교인구가 느는 이유

최근 불교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자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집계 결과 불자가 2% 늘었다. 최근의 인류·세계사적인 국면이 불교적 세계관을 크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과학사상은 자연현상을 생물권 전체 또는 우주권 등 거대한 시야에서 관찰하고 있다. 유대·기독교적인 인간 또는 신 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만물재민(萬物皆靈)의 입장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의 만다라사상은 실용심리학에서 이용되어 있다. 근세 이후 세계를 휩쓸어 온 근세 서양과학은 그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불교적 세계관에 기대를 하고 과학은 카오스이론으로 지금까지 방치해온 자연의 복잡성을 관찰한다.

본래 유대·기독교와 근대과학사상 그리고 공산주의는 유대민족의 일신교사상에서 나왔다. 일신교사상이란 '우주·세계 모두가 하나의 힘, 또는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고 전개된다'는 믿음이다.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불교와는 정반대이다. 유대·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가 선이며, 공산주의자에게는 경제력이 그 '하나'였다. 신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자연지배를 기도해온 과학은 공해만을 축적해왔다. 그들에게 이단시비, 반종속성이 유발하게 된 것은 신이 '하나'를 다스리도록 무시는 일은 곧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죄인이나 악마를 타도하고 영광에 빛나는 신이 지배한다는 것은, 곧 부르조아를 무너뜨리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하는 착취가 없는 공산혁명이 실현된다는 생각과 같다. 스탈린시

대 소련이 2천만명 이상을 숙청하고 수용소군도를 만들었다. 히틀러의 나치가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6백만 유대인을 학살한 일은 중세 천주교도가 저지른 이단에 대한 학살·종교재판과 같은 발상이다. 유일적인 힘이 어김없이 전 인류, 전세계를 지배해 간다는 강렬한 물권 전체 또는 우주권 등 거대한 시야에서 관찰하고 있다. 유대·기독교적인 인간 또는 신 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만물재민(萬物皆靈)의 입장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련의 사실을 구조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기독교 → ②공산주의 나치즘 → ③이데올로기의 종언. 다소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변증법의 정·반·합의 구조이다.

이제 이데올로기의 주문에서 벗어난 인류사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교적인 공생, 타인적 사상이 지배적인 것이다. 전인류가 함께 생존하는 지혜가 요망될 때 불교적 세계관은 크게 각광받을 것이다.

처음 55개국으로 시작한 국제연합은 1995년 169개의 회원국을 갖게 되었으며 21세기 초에는 20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카오스의 세계로 비친다. 이 추세는 종교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수많은 민족의 신, 곧 전통적 종교가 부활될 것이다. 앞으로 일신교적인 사상이 더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며 이성과 함께 관용성이 높은 불교가 크게 부상할 것이다. 불교의 방편사상은 교리의 근본만을 지니고 여러 각도로부터 해석을 허용한다. 수많은 민족의 공생과 다원적 종교, 그리고 이들을 포용하는 관용사상은 지니는 고등종교의 기대가 앞으로 21세기 범인류차원의 중대 관심사이다. 따라서 보살되기를 서원한 불자들의 여가야 결코 가벼울 수 없을 것이다.

열린마당

정당불자회

대선용 의혹 떨치고 불법홍포 모임되길

정천구교수 (인천대 정외과)

개신교는 지난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교의 2배에 가까운 118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영향력과 비교할 때 반비례의 현상이다. 세속사회인 국가가 특정종교의 편향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라도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부분이다.

94년 조계종 개혁종단의 출범으로 과거와 달리 불교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불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95, 96년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마침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각 정당 불자회의 활발한 활동은 이러한 정치행사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현상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정당 불자회가 소속 정당에 불교의 가르침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각 정당불자회는 하나같이 불교계의 현안해소를 주요한 활동방향으로 삼고 있다. 순수한 목적외에, 정권창출을 위한 정당활동이든 불교계로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의 활동이 언제나 정권 창출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진다는 속성을 감안해야 한다.



정천구교수 (인천대 정외과)

정당은 우리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 제정하는 등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정당의 움직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속의 정치와 탈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는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 자칫 불교의 정치적 대응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추진다면 불교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는다.

불교의 정치 행위는 대중적 견지에서 중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의명분에 충실한 참여여야 하며, 정당의 활동여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불자회가 소속정당의 시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판도 불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정리=정성운 기자)

'불자 겨안기' 오해불식 바른정치 선도

심익섭교수 (동국대 행정학과)

얼마전 배달된 모정당 홍보물이 종단 큰스님 설법전문만으로 작성된 것을 보고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것도 유영인지 요즘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마다 경쟁적으로 불자회를 통한 '불교계 끌어안기'가 활발한 가운데, 급기야는 현정권 출범 이후 철용성 같았던 청와대에도 불교신도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국교가 인정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최대종교로서 불자모임이 정치권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것은 불국토건설을 위한 포교차원에서 그러하고, 신자에게 다가간다는 현대불교 이미지 쇄신차원에서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 한국의 정당이 정치지도자들이 최소한도의 불교가르침이라도 따랐다면 오늘날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이나 정부내의 불자회



심익섭교수 (동국대 행정학과)

활성화는 새삼스럽지는 않더라도 매우 다행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불교와 현실정치의 관계는 서로 등을 돌린채 소원한 것도 이상

하지만, 동시에 불교이념을 공유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에게 유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접근해올 경우 불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불교계가 시합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당불자회에 소속된 불자들의 기본사고가 관계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동시에 이들 단체가 바른정치를 이끄는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불교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정당은 당연히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당불자회를 이용해보겠다는 소극적인 사고보다는 정치발전의 기틀을 불교가 마련해 준다는 적극적인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불교계인사 초청간담회 준비

함중환의원 (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

우리 당의 불교신도회는 오래 전부터 구성되어 매일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통해 당원들의 신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일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불교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는 정기총회 겸 신임회장 취임법회이다. 따라서 대선을 위해 새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고문단과 부회장단을 대폭 보강했다. 이는 불교가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세명중 한명이 불자이다. 그만큼 불교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후 우리 당의 불교신도회는 각 종단 총무원장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초청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안을 강경해 정치국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타당성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지원할 것이다.

불교관련 정책대안 제시 창구

박상규의원 (국민회의 연동회장)

연동회는 무엇보다 불교신앙인의 모임으로, 회원들의 신심양양 그리고 청정불국토를 구현하려는 마음이 모인 법당이다. 나아가 불자국회의원으로서 불교계의 현안과 관련해 폭넓고 깊이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이 불교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연동회를 불교계의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동안 새정치국민회의는 정책당임을 표방하면서도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불교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일에도 다소 소홀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반성을 연동회는 앞으로 여러 활동에서 보여줄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대선용' 또는 '일회용'이라는 경계의 시각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되며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불법지혜로 정치마당 혁신을

정상구의원 (자민련 불자회장)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며, 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구하고 널리 중생에게 자비를 펼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요약된다. 또 불자라면 깨달음의 세계를 구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정치의 마당에서 펼치고자 하는 자민련불자회의 창립과 활동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당의 이념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지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자민련불자회의 목적이다.

자민련불자회는 결코 대선용이 아니다. 혹시 당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불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단연코 거부할 것이다.

매일 정기법회를 통해 당원들의 불심을 북돋우고, 불교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대만평



한자가 통하니 뜻도...

한중일 불교교류대회 이모저모

영산재·방송시설에 감탄

○... 이번 서울대회는 단순한 토론에서 벗어나 한국불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문화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3국대표들의 한국불교 이해에 도움을 주기도. 11일 동국대가 주관한 세계평화기원 영산대법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세계인류사상 회생된 유주무주의 고훈을 애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등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 또한 불교텔레비전이 마련한 불교문화대전은 계속되는 회의로 한국불

교계를 살피지 못했던 중국, 일본대 표들에게 한국불교를 한눈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불교TV, 불교방송을 방문, 세계 유일의 불교방송 시설에 감탄을 연발했다.

여야정치인 발걸음 분주

○... 3국불교대회가 열린 서울 위거호텔에는 불교계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분주. 이우성 국무총리와 김영수문체부장관이 대회 참석자들을 초청 오찬을 베풀며 이어 이흥구 신한국당 총재,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비롯 서석재, 정한용의원 등 20여명이 회의장을 방문했다.

귀빈자리 마련 '우왕좌왕'

○... 국내에서 열린 국제불교회의로는 최대행사였던 이번 대회에도 옥의 티가 발견되어 아쉬움을 주기도. 가장 큰 옥의 티는 매그립지 않은 진행. 개막식이 열린 본대회장에 국내의 귀빈들을 입장하는 순서대로 자리를 안내해 늦게 도착한 귀빈 자리를 마련하느라 우왕좌왕. 10일 각국 기조연설에서는 사회

자가 보조연설없이 회의를 끝내려고 했다가 항의를 받고 연설자를 긴급히 소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조박초단장 건강이유 불참

○... 3국대회 탄생의 주역 조박초(趙朴初)중국 명예단장이 건강악화로 불참했으나 축전을 통해 서울대회의 성공을 기원, 본대회장을 숙연하게 했다. 조단장은 '성대한 서울대회에 참석하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의사의 권고를 물리칠수 없어 유감천만이다'며 '균형

(群賢)이 운집한 서울을 멀리바라보며 마음은 서울로 쏠리고 있어 환희를 금할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달라이라마 거론 강한 반발

○... 서울대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최대 관심중의 하나는 인도에 망명중인 티벳정부와 중국 자치구에 있는 티벳불교의 관계. 그러나 중국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라마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보여 취재진을 당황시키기도. 달라이라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인터뷰가 중단되기도 해 달라이라마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5차 금오문도수련법회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오 큰스님의 참선수행사상과 정화이념을 더듬어 살피고 되새겨서 오늘에 실천하고자 하는 제5차 금오문도수련법회를 다음의 내용으로 마련합니다. 세계인류의 평화와 회합을 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래 인류의 지도자로서 참 승가상을 정립하고 중생을 향한 바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이번 수련법회에 문도제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다 음 -

- 중 명 : 성림 월산 대종사
지도위원 : 범행스님, 탄성스님, 이두스님, 혜정스님, 월주스님, 월서스님, 월탄스님, 정일스님, 설조스님, 월룡스님, 천룡스님, 월은스님, 함주스님, 삼덕스님, 월나스님, 월선스님, 월국스님
준비위원 : 성타, 해광, 도영, 무상, 지명, 종상, 법달, 성운, 현덕, 도원, 도법, 종광, 현일, 성보, 성일, 성돈, 성천, 진광, 성비, 평상, 도일

- 추진위원 : 도공, 각안, 명진, 진행, 각명, 현관, 원행, 성덕, 성중, 함현, 현수, 지원, 응당, 청화, 고당, 수원, 지학, 황석, 진원, 원진
일 시 : 입제 - 불기 2540년 9월 28일(음 8월 16일) 오후 3시
회향 - 불기 2540년 9월 29일(음 8월 17일) 노스님 제일 오후 2시(1박2일)
장 소 : 속리산 법주사
내 용 :

- 1. 대중포살 - 이두스님(해동불교대학장)
2. 금오대선사의 행장 -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3. 현대논리학과 사유형식 - 오상환교수(교수불자연합회장)
4. 21세기를 대비한 불교의 과제 - 황진수 교수(한성대)
기 타 :
1. 준비물 - 대가사와 장삼
2. 연락처 - 0433143-3615 (속리산 법주사)
021203-3677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불기 2540년 9월 일

금오문도수련법회대회장 각 현 합장
금오손상좌문도회장